

연구 논문

## 한글성서의 번역 · 보급과 그 문화 · 사회사적인 의미\*

김창주

(한신대 겸임교수/ 구약학)

### Abstract

This article tries to help understand what Korean Translation of the Bible means socio-historically during late 19th century to early 20th century. With Korean converts' aid John Ross began to translate the Bible into Korean and published the Gospel of Luke in 1882 at Manchuria, called as Ross Version. This has been considered as the first Korean Translation of the New Testament. On the other hand, in Japan Yi Su Jung translated the Gospel of Mark from the Chinese Bible in 1883. Two years later when first missionaries Horace G. Underwood and Henry G. Appenzeller came to Korea they took Yi's Version with them. Both of translations however were done outside of the Korean Peninsula because missionary work was not allowed at that time.

Owing to western nations' contact directly and indirectly, the treaty between

---

\* 이 논문은 한신대학교 학술원 신학연구소의 연구프로젝트 '한국 개신교가 한국 근현대의 사회·문화적 변동에 끼친 영향 연구'(KRF2002-073-AM1029)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as the first to be signed in 1882. Consequently, treaties of commerce were concluded with England, Germany, and other nations. Not until then Christian missionaries could not come to Korea officially. After Korea opened the locked gate, Korean Translation spreaded more wide and quickly than before throughout Korea. At this moment, two movements were made concerning Korean Translation. First, the Korean Translation of the Old and New Testament started to be done full-scale on the one hand. In fact, this was the first and original purpose out of question that missionaries intended. Second and unexpectedly, Korean alphabet, hangul, had a chance to be reborn on the other hand. Since invented in 1443, hangul had been mistreated as lower letters, so-called unmun. Hangul was not used official, but Chinese was. Accordingly, it was not necessary for Korean elite to have Korean Translations.

However, missionaries tried to translate the Bible into Korean. Obviously, Korean (phonetic symbol) is much easier to learn than Chinese (hieroglyphic). Eugene Nida maintains that the Bible Translation should satisfy the condition who are the readers. In order to meet this requirement, translator must use common language which is spoken contemporary. Ross "already" recognized the principle that modern theory insists. Here is a great aspect of the Korean Translation because Ross translated into Korean even when hangul was written only by the marginal, not by the elite at those times. Besides, it is said that the modernization of hangul resulted from Korean Translation. Previously, in hangul neither spacing words nor orthography, the rules of spelling, were not set. The appearance of Korean Bible gave an opportunity to hangul to be developed and women and lower class to become civilized.

If so, how can we value pervasive effect of Korean Translation of the Bible? First of all, Korean Translation helped live and develop hangul each other. It means that the development of hangul must be understood in light of Korean Translation, vice versa. Second, with the spread of Korean Translation minjung had become aware themselves as the subject of Korean history. Its starting point

was nothing but the emergence of Korean Translation of the Bible. Third, the one time-illiterate could enjoy reading the Bible and other literatures; moreover, they could make involvement and contribution to socio-cultural life actively. Cooperation between hangul and Korean Translation, as a result, transformed Korea into a "light to the whole world." (Isa. 49:6)

## Key Words

Ross Version, hangul, Korean Translation, John Ross

### 1. 고요한 아침의 나라

#### 1) 조선을 깨우는 한글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말은 조선(朝鮮)의 한자 의미를 풀어쓴 것으로써 구한말 조선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자주 사용하던 표현이다. 미국의 물리학자인 로웰(P. Lowell)은 일본에 머무는 동안 조선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갖게 되어 1882년에 *Chosun: The Land of Morning Calm*을 보스턴에서 발간하였고 얼마 후 새비지 - 랜도어(A. H. Savage-Landor)가 1895년 런던에서 *Corea or Cho-se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라는 책을 펴내었다. 그리고 10여 년 후 그리피스(W. E. Griffis)가 뉴욕에서 *Corea: The Hermit Nation*이라는 책을 지어 조선의 역사와 사회문화를 서구에 소개하였다. 이로써 조선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 혹은 “은자의 나라”라는 별명을 얻게 된다.<sup>1)</sup>

그러나 고려 혹은 조선을 서구에 처음 알린 사람은 13세기 중엽 루브룩(G. de Rubruc)이다. 그는 교황청의 파송을 받아 몽고의 칸바리크(和林)에 머무는 동안 몽고군을 따라 압록강까지 왔다가 교황청에 보낸

1) Arnold H. Savage-Landor, *Corea: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신복룡 역,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서울: 집문당, 1999), 5.

보고서를 통하여 고려의 존재를 서구에 처음으로 알리게 된다. 루브룩은 그의 편지에서 고려를 카올레(Caulej)라고 표기하였다.<sup>2)</sup> 루브룩이 고려/조선의 존재를 처음 알렸다면 마르코 폴로(Marco Polo)는 조선 사회를 서구에 최초로 소개한 사람일 것이다. 그는 13세기 말 『동방견문록』에서 당시 고려국을 Coria라고 쓰고 있다. 이후 고려/조선의 영어 표기는 Caule, Corie, Coeree, Corea 등 다양하게 쓰이다가 조선의 개국 이후 선교사들에 의해 현재의 Corea/Korea로 굳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산업혁명 이후 서구의 열강들은 자국의 시장 개척과 동시에 그들의 눈에 신비스런 대륙으로 남아있는 동양에 대하여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였다. 인접한 중국은 직간접적으로 서양 세계에 닿아 있었고 일본은 16세기에 서구의 선교사들이 드나들면서 일본의 존재가 서구에 알려진 것이다. 그렇지만 중간 지점에 위치한 조선은 서구인들에게 아직 미지의 땅이었다. 상대적으로 조선의 지식인들은 서구 세계를 막연히 알았지만 당시 사정으로는 그 갈증을 채울 수는 없었다. 실학자들은 중국을 통해 서구의 문물을 간간히 접하였으나 조정은 서구 문물의 유입과 접촉에 대하여 감시를 강화하고 빗장을 완전히 걸어 잠그는 쇄국정책을 한 동안 편다. 이 와중에도 한자로 전해지는 서구 사상과 문화가 조선의 문을 두드렸으나 아직 역부족이었다. 이때 굳게 닫힌 조선의 빗장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한글, 즉 한글성서였다. “구리 문을 췌트리시며 쇄 빗장을 쓴호셨도다.”<sup>3)</sup>

## 2) 열리는 세계

여러 선교사들이 조선의 닫힌 문을 열기 위해 직간접적인 방법을 동원하였다. 1832년 7월 네덜란드 선교회 소속 독일 선교사 귀츨라프(K. F. Gutzlaff)가 충청도 고대도(古代島)에 들러 한문성서를 반포한 동시에 양

2) 閔庚培, 『韓國基督教會史』 신개정판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0), 30-33.

3) 『구약전서』(1911년), 시편 107:16 참조하라.

씨(Yang chi)로부터 한글을 배우고 『주기도문』을 번역하였다. 1866년 토마스(R. J. Thomas)는 제너럴 셔먼(General Sherman)호를 타고 서해안 일대를 지나 대동강 입구에서 한문성경과 전도 책자를 전하다가 순교하였다.

그러나 조선이 문호를 여전히 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 선교에 열의를 가진 선교사들은 간접적인 방법을 택하면서 선교 활동이 자유로울 때를 대비하고 있었다. 로스(John Ross) 역시 조선의 변방인 고려문에서 조선 사람을 만나 조선의 동태를 살피는 한편 조선말을 가르쳐 줄 교사를 찾기 시작한다. 1876년 고려문을 방문한 로스는 드디어 이응찬(李應贊)을 만나 조선말을 배우고 1877년 중국에서 『조선어 첫 걸음』을 간행하였다. 1881년에는 한글로 인쇄된 최초의 기독교 문서 『예수성교요령』, 『예수성교문답』을 발행하고 이듬 해 역시 만주에서 로스는 최초 한글 신약성서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와 『예수성교 요한니복음전서』를 잇달아 간행한다.

로스가 만주에서 조선 선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무렵 1882년에 조미 수호 조약이 체결되어 선교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 조선이 서방국가와 최초로 맺은 조미 수호 조약은 미국과의 국교와 통상을 목적으로 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열릴 듯 닫혀있던 조선의 문을 열고 선교사들이 공식적으로 입국하는 계기가 된다. 드디어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H. G. Underwood)와 아펜젤러(H.G. Appenzeller)가 입국하였다.<sup>4)</sup>

이제는 조선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선교할 수 있는 본격적인 선교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때 만주의 로스와 일본의 이수정은 이미 한글로 성서를 번역 보급하고 있었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이수정이 번역한 한글성서 『신약마가전복음서』를 들고 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듯 조선을 열리는 세계로 인도하던 뒤편에는 “한글성서”가 자리

4) 閔庚培, *ibid.*, 49.

하고 있었다.<sup>5)</sup> 조선이 마침내 기지개를 켜자 그동안 한자와 사대부 문화에 갇혀 “언문”, “암글”로 조롱받던 한글은 조선 반도와 민중을 깨우고 서구 세계로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글은 한글성서의 역사적인 의미를 『로스 번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후 한글성서의 파급 효과 즉 한국 역사의 길라잡이로서 그 문화·사회사적인 의미를 밝히는 데 그 일차적인 목적을 둔다. 아울러 한글성서의 탄생과 발전 과정에서 보여준 한글성서의 역할을 통하여 한글성서가 앞으로 한국 사회와 문화에 어떤 기여와 역할을 할 수 있을는지 조망해 보려고 한다.

## 2. 고요한 혁명: 성서의 한글 번역

### 1) 존 로스(John Ross)와 한글성서의 번역

최초의 한글성서는 어느 것인가? 이 문제는 견해에 따라 몇 가지 입장으로 나뉘지만 대개 1882년 로스의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를 한글성서의 기원으로 본다.<sup>6)</sup> 천주교에서는 1790년대에 최창현 신부가 한글로 번역한 『성경직히광익』을 최초의 한글성서로 들기도 하고, 또 개신교에서는 구출라프의 『주기도문』(1832)이 한글성서의 처음이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sup>7)</sup> 한편 구약분야에서는 1897년 2월 창간된 『조선그리스

5) 성서인가? 성경인가? 이 논쟁에 관하여 민영진, “성경이나 성서냐” 『살림』 69(1994. 8), 46-56을 보라.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성경(聖經)이 성서(聖書)에 비하여 높임말로 인식되고 있다.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 조직 성장과 수난』(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 9. 그러나 <성경전서>를 짧게 부르면 <성경>이 되기도 하고 <성서>도 된다.

6) 김중은, “최초의 구약 국역 선구자 알렉산더 피터스(Alexander A. Pieters. 皮得)”, 『교회와 신학』 13집 (1981), 23; 이덕주, “한글성서 번역에 관한 연구: 1882-1938년 간행된 성서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민족운동』(서울: 종로서적, 1986) 114.

7) 김양선, “Ross Version과 韓國 Protestantism”, 『自由學報』 3, (1967), 401-61; 이덕주, “초기 한글성서 번역에 관한 연구” 특히 성서 번역자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와 겨레문화연구회 편, 『한글성서와 겨레문화』: 천주교와 개신교와의 만남(서울:

도회보』에 실린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상, 창세기”가 효시가 될 수 있다.<sup>8)</sup> 로스가 조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시기적으로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sup>9)</sup> 로스는 1872년 중국 선교사로 지푸(芝罘)에 도착하여 산둥 일대를 선교할 생각이었으나 미국 선교사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선교 처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 그는 만주를 근거지로 정하고 1873년 가을에 봉천 일대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고려문에서 한 조선인을 만나 한문성서를 몇 권 전하였다. 이를 계기로 로스는 조선 사람들의 강렬한 신지식에 대한 열의에 감동을 받게 되고 쇄국문에 갇혀 있던 조선에 대한 선교를 결심하게 된다. 윌리엄슨(A. Williamson)을 통해 토마스 목사의 순교 소식을 들었지만 로스는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조선 선교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조선 가까이 가보려는 마음으로 1874년 10월 9일 영구를 출발하여 압록강 하류의 국경지역과 고려문을 방문하기 위한 약 3주간의 순회 전도를 나섰다. 이 당시 고려문은 약 3천 명 정도의 조선인이 거주하는 무역의 중심지였다. 로스는 이들에게 전도할 목적으로 한문성서를 팔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조선은 아직 병인양요(1866)와 신미양요(1871) 등으로 인하여 뒤숭숭한데다가 서구와의 통상, 교역, 외교적인 관계가 수립되기 전이므로 자유롭게 외국인을 대면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더구나 조선 상인들에게 낯다른 관심을 보이는 로스가 “남의 나라 기밀을 살피러 온 악의의 정탐군”으로 보여 구체적인 만남은 없었다.<sup>10)</sup>

기독교교문사, 1985), 416; 허호익, “기출라프의 고대도 선교와 원산도 기념비의 비판적 고증”, 『한국교회사 연구논문집』 제12집 (2000. 3), 82-109보라.

8) 민영진, “조선크리스도인회보에 연재된 구약” 『기독교사상』 336 (1986년 12월호), 108; 이덕주, “한글성서 번역에 관한 연구: 1882-1938년 간행된 성서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민족운동』(서울: 종로서적, 1986), 114.

9) 김정현(James H. Grayson), 『羅約翰(John Ross) 한국의 첫 선교사』(대구: 계명대학교출판사, 1982); 최성일, “존 로스와 한국 개신교” 『기독교사상』 397(1992. 1), 116-34; 398(1992. 2), 87-101 등을 보라.

첫 번째 여행에서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한 로스는 1876년 두 번째 여행에서 이응찬을 만나고 곧이어 한국인 최초의 수세자인 백홍준(白鴻俊), 이성하(李成夏), 김진기(金鎭基) 등이 합류하게 된다.<sup>11)</sup> 한국인을 만난 로스의 행보는 빨라지기 시작하였다. 1877년 『조선어 첫걸음』, 1881년 전도문서 『예수성교요령』, 『예수성교문답』을 간행하였다. 마침내 1882년 3월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 5월 『예수성교 요한복음전서』를 심양 문광서원에서 간행하였고 1887년에 신약 전권이 『예수성교전서』라는 이름으로 발행되었다. 이 성경 번역을 우리는 『로스 번역』(Ross Version)이라고 부른다.<sup>12)</sup> 이렇게 하여 한글성서는 한민족의 역사 앞에 등장하였다. 여기에는 매킨타이어를 비롯한 이응찬, 백홍준, 김진기, 이성하, 이익세(李益世), 최성균(崔成均), 서상륜(徐相崙), 김청송(金靑松) 등 한국인들의 땀과 정성이 들어 있었다.

## 2) 『로스 번역』의 특징과 역사적인 의의

『로스 번역』은 최초 한글성서라는 영예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적인 평가는 두 갈래로 나뉜다. 즉 로스보다 뒤늦게 한국 선교에 뛰어든 미국 선교사들은 『로스 번역』에 나타나는 평안도 사투리, 어려운 한자, 그리고 애매모호한 표현 때문에 사용하기에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다.

10) 백낙준, 『한국개신교사』(서울: 연세대출판부, 1973), 50.

11) 徐相崙, “예수 성교가 조선에 시입한 역사” 『平壤神學校 學友會報』 제2호 (1921); 김양선, “Ross Version과 韓國 Protestantism” 419. 이응찬의 앞선으로 1875년 백홍준, 이성하, 김진기 등은 우장(牛莊)에서 한국어 선생으로 있다가 이듬해 맥킨타이어 목사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12) 일반적으로 “로스 번역”이라 하면 1887년 심양 문광서원에서 발행한 『예수성교전서』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1882년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 1883년 『예수성교 요한복음전서』, 『예수성교 누가복음 대자행적』, 1884년 『예수성교맛대복음』, 『예수성교 말코복음』, 1885년 『예수성교 요한복음 이비쇼서신』, 『예수성교 맛대복음』, 1887년 『예수성교전서』 등 총 8권의 한글성서를 총칭하는 말이다. 김양선, “Ross Version과 韓國 Protestantism”, 403; 이낙주, “초기 한글성서”, 419.



한편 1960년대 초 『새번역 성서』의 번역 위원이었던 리차드 루트(R. Rutt)는 “지금까지 한글로 번역된 성서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작품은 로스 번역”이라고 극찬하기도 한다.<sup>13)</sup> 어쨌든 『로스 번역』은 다음 몇 가지 점에서 매우 주목할만하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로스 번역에는 한문성경을 대본(Vorlage)<sup>14)</sup>으로 하였기 때문에 한문 표현과 서북 사투리에 남아 있는 고어들이 자주 발견된다. 그 이유는 로스를 도왔던 사람들이 주로 의주 출신이었고 로스와 매킨타이어 역시 이들에게서 우리말을 배웠기 때문에 『예수성교전서』에 평안도 사투리가 들어있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민영진은 “『예수성교전서』에 관한 고찰”에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서북 방언의 예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sup>15)</sup>

우리노더부터어드라기네와서 --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1:24)	
올단기굴 -- 요단강(1:5)	식박애 -- 새벽애(1:35)
소리롤불우제기고 -- 소리를 지르며(1:26)	집엥울구멍 -- 지붕(2:4)
어니거쉽갓느냐 -- 어느 것이 쉽겠느냐(2:9)	밥도먹지못하가스니 -- 밥도 먹지 못하겠으니(3:20)
옷을넙고 -- 입고(5:15)	발알에엎제여 -- 엎드려(5:22)
발에본주롤덜어 -- 먼지를(6:11)	악형과쇠우리질과 -- 악행과 속임질(7:22)
귀먹당이 -- 귀머거리(7:37)	넙굽이로소이다 -- 일곱(8:5)
바늘구녕 -- 바늘 구멍(10:25)	당사하느자 -- 장사하는 자(11:15)
오직아바니만아아느니라 -- 아버지(13:29)	혹아적 -- 아침애(13:35)

13) R. Rutt, "Concerning the New Testament of the Korean Bible", *Technical Papers for the Bible Translators* 15/2(April 1964), 82. 최성일, "존 로스와 한국개신교" (I) 127에서 거듭 인용.

14) 『로스 번역』의 저본(底本)은 한국인들이 로스를 도와 번역한 점으로 보아 『新約全書文理』(1852)원 가능성이 많다. 최성일, "존 로스와 한국개신교" 122-27; 민영진, 『國譯聖書研究』(서울: 성광문화사, 1984), 131-33.

15) 민영진, 『國譯聖書研究』, 134-36.

위와 같이 평안도 방언에 남아 있는 독특한 표현과 구개음화되지 않은 강한 발음이 이곳저곳에서 발견된다. 따라서 『로스 번역』은 19세기 후반 평안도 방언과 발음을 잘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국어학적인 연구 자료로서 매우 귀중하다. 뿐만 아니라 『개역성서』에서 한글로 번역되었지만 『로스 번역』이 한자어를 쓰는 예가 가끔 나온다.<sup>16)</sup>

강림(降臨) - 내려오심(1:10)

간정(簡淨) - 깨끗케(1:40)

종내(終乃) - 도무지(2:12)

합당(合當) - 흥나 - 옳으냐(3:4)

농군(農軍) - 씨뿌리는 자(4:3)

허다(許多)이 - 큰 무리가(5:24)

니왕(來往) - 흥난자 - 오고 가는 사람(6:31)

축간(廁間) - 뒤(7:19)

슈두(首頭) - 첫째(9:35)

아해(兒孩) - 딸아 - 애들아(10:24)

형극(荊棘) - 가시나무(12:26)

초혼(初昏) - 저물 때(13:35)

그렇지만 이와 같은 한자어는 문맥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 당시가 한자 사회였고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전후 문맥을 통하여 해독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 만들어졌거나 『로스 번역』에만 쓰인 생소한 단어들이다. 즉 “성령”, “복음”, “인자”, “축슈” 등은 한자로 기록하거나 한글로 병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자들에게는 다소 낯설었을 것이다. 한편 민영진은 『로스 번역』의 이런 한자어 사용에도 불구하고 『개역성서』의 한자어 쓰임보다는 그 비율이 낮다고 주장한다.<sup>17)</sup>

둘째, 한글이 현대어로 발달하기 이전이었으므로 띄어쓰기가 안 되었다. 한글은 종결형 어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침 부호나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로스의 『예수성교누가복음전

16) Ibid., 140-42.

17) Ibid., 140. 후에 동지사 행렬에 참가하였던 서울 서생(?)을 통하여 다시 한번 교정을 보았다고는 하나 사투리는 남아있다.

서』에는 장(章)과 절(節)은 물론이고 단어와 단어 사이도 띄어쓰기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사실 띄어쓰기와 가로 풀어쓰기는 한글성서 번역에 관여하고 한글 연구에 가담한 선교사들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된 문제이기도 하다.<sup>18)</sup> 다음은 1882년 요한복음 즉 『예수성교성서 요안니복음전서』의 인용이다.

처음에도가이스되도가 하느님과함께하니 하느님이라이도가처음에 하느님  
과함께하미만물이말무아다지여스니지은비는하나도말무다안코지오미업넌이라  
도에성명이이스니이성명이사람에빛치되야빛치우되어두운데는아디못하더라  
(요 1:1-5)

또 한 가지 『로스 번역』은 특별히 “하느님”, “주”,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을 쓴 후에 반드시 한 칸 띄어쓰기를 하고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대두법”(擡頭法)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격자”(隔字)가 옳은 표현이다.<sup>19)</sup>

오래 전부터 한문의 서법(書法)에는 왕, 부모 혹은 공경하는 사람을 표기하는 독특한 방법이 있었다. 그것은 곧 격자로서 “임금”이나 “나라” 이름 앞에서 한 칸을 띄어쓴 것이다. 그리고 대두법은 상제(上帝)와 같은 천상의 존재를 기록할 때는 격자보다 등급이 높다는 의미에서 줄을 새롭게 잡아 쓰거나 보통 시작하는 것보다 한 칸 위에도 기록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로스 번역』이 “하나님”과 “예수” 등의 낱말 앞에 “한 칸 띄어 쓴 것”은 동양적인 전통의 “격자”이다. 여하간 『로스 번역』

18) 고영근, 『한국어문운동과 근대화』(서울: 탐출판사, 1998), 7; R. King, “Western Missionaries and the Origins of Korean Language Modernization”, 제9회 『한국학 국제학술회의논문집』(1996. 6).

19) 이용호, “최초의 한글성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 『국어교육』 44/45(1983. 2), 432-35를 보라.

에 쓰인 띄어쓰기는 동양 전통을 따르면서도 히브리 전통과 맞닿아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네 글자” [יהוה]를 기록하되 읽기는 “주”(the Lord)라고 읽었다. 로스의 한글 번역이 취하고 있는 띄어쓰기는 당시 한글 표기법이 현재와 같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의 용례를 따랐을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에 경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히브리 신앙에 충실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당시 통용되는 한문이 아니라 한글로 번역되었다는 사실이다. 한국은 오랫동안 중국의 문물을 숭상하였기 때문에 한문을 진서라고 여기고 한글을 언문으로 천시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사대부들은 한문 공부를 하여 한문성경으로 선교를 해도 불편이 없었을 것이고 동시에 한글 번역의 필요성도 없었다. 그러나 한글성서는 조선의 식자층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절대다수인 평민들과 부녀자들을 목표로 하였다는 사실에 있어서 큰 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한글은 공식문자가 아니라 중인과 아녀자들이 읽을 수 있는 글에 지나지 않았다. 실제로 토마스 목사가 1866년 대동강 입구에서 전도할 때 그의 손에는 한문성경이 들려있었다.<sup>20)</sup> 이 말은 당시 양반과 선비들이 읽을 수 있는 한문성경이 반입되어도 한국 선교가 가능하였을 것임을 반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가 한글성서를 발행하였다는 것은 그 의의가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로스 번역』의 특징 중 가장 중요한 사실이 바로 한자어를 과감히 한글로 풀어쓰고 있다는 점이다. 민영진은 『개역성서』의 마가복음에서 위와 같은 예를 다음과 같이 조사한 바 있다.<sup>21)</sup>

죄를말하고 · 죄를 자복(自服)하고(1:5)	어엿비네겨 · 민망(慚亡)히 여기사(1:41)
바람중흔노자 · 중풍병자(中風病者)(2:3)	울혼사름 · 의인(義人)(2:17)
배꼽풀때에 · 시장할 때에(2:25)	얼매면 · 결박(結縛)하면(3:27)

20) 백낙준, 위의 책, 48.

21) 민영진, 『國譯聖書研究』, 137-39.

새긴죽 · 번역(翻譯)하면(5:41)	허리에 · 전대(纏帶)에(6:8)
몸을이기어 · 자기를 부인(否認)하고(8:34)	지름을 · 경련(痙攣)을(9:20)
손을그우에다이고 · 안수(按手)하시고(10:16)	바느집 · 기도(祈禱)하는 집(11:17)
거죽 · 외식(外飾)함을 아시고(12:15)	넘는절 · 유월절(逾越節)(14:1)
허물흐거날 · 책망(責望)하는지라(14:5)	

이를 보면 로스는 한자 대신 우리말을 의도적으로 발굴하면서 번역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sup>22)</sup> 다른 번역들, 1900년 『신약전서』나 1911년 『구약전서』 등은 이미 상당수의 단어들을 한자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로스 번역』의 한글 사용에 비하여 벌써 후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로스 번역』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한국 교회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1938년 판 『개역성서』보다도 순수 한글을 더 많이 사용하려는 노력이 눈에 띈다. 이런 점을 비추어 유창균은 『로스 번역』이 쉬운 고유어를 최대한 활용하였고 또 한자어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한국어에 동화된 낱말들이기 때문에 일반 독자들이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본다.<sup>23)</sup> 민영진은 “『로스 번역』이 일반 민중을 고려한 가장 쉬운 번역”이라고 주장한다.<sup>24)</sup>

로스는 이응찬에게서 한국말을 배우면서 한글의 실체를 알게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이 다 하기 전에 깨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설명이 있지만 로스는 과학적이면서도 배우기 쉬운 한글에 대하여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한글이 표음문자이기 때문에 음역할 경우 “열에서 아홉은 완벽하게 원음을 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sup>25)</sup> 한글을

22) 박창환, “한글성서 번역의 역사”, 『교회와 신학』4(1971), 161; 민영진, “예수성교전서”, 156.

23) 유창균, “國譯聖書가 國語의 發達에 끼친 影響”, 『東西文化』(대구: 계명대학동서문화연구소, 1967), 69.

24) 민영진, 『國譯聖書研究』, 136.

발견한 로스는 아마도 조선 반도의 선교를 이미 이론 것과는 같은 흐름한 기본이었을 것이다. 후에 영국 성서공회 총무였던 휴 밀러(Hugh Miller)는 시사적인 발언을 하였다: “성경을 한글로 옮기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려면 첫째 ‘하나님’이라는 순수 한글 말과 둘째로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 자모의 역할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표하여야 한다.”<sup>26)</sup>

### 3) 네비우스(John Nevius)의 선교정책과 성서번역의 원칙

한글성서의 과금 효과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루고 우선 한글성서 출현의 의미에 대하여 선교사들의 선교정책과 성서의 번역 원칙에 관련하여 논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한글성서의 탄생은 후에 있을 선교사들의 선교정책과 성서 번역의 원리와 원칙에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선교사들이 각자 선교를 하다보니 한 지역에서 두 선교회가 중복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 같은 갈등을 해소하고자 1892년 6월 선교 협의회를 가져 북장로교는 평안도, 황해도, 경기도를, 남장로교는 전라도와 충청도를, 호주 장로교는 경남 지역을, 캐나다 장로교는 함경도 지역을 맡는다는 협약을 맺게 된다. 이 당시 네비우스는 중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의 선교 방법론이 알려져 조선선교사들이 1890년에 초청하여 “선교 전략과 방법론”에 대한 강의를 듣고 선교정책을 채택하게 된다. 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자치(自治), 자립(自立), 자전(自傳) 이른바 “3자정책”으로 알려진 네비우스의 선교정책이다.<sup>27)</sup> 조선의 선교사들은 네비우스의 선교정책을 실정에 맞게 받아들였고 이는 한국 교회의 성장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 선교 협약에는 우리의 논제와 연결된

25) 최성일, 『존 로스의 중국선교방법론』(오산: 한신대출판부, 2002), 125.

26) 関 休, “朝鮮語聖經の由來”, 『單券聖經註釋』, 柳堦基 編 (서울: 신생사, 1934), 53-58.

27) A. D. Clark, The Korean Church and the Nevius Methods(New York: Fleming H.Revell, 1930) 참조하라.

성서의 한글 번역 정신에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에 그 일부를 소개한다.

- 1) 상류 계급보다는 근로 계급을 상대로 해서 전도하는 것이 좋다.
- 2) 부녀자들에게 전도하고 크리스천 소녀들을 교육하는 데 특별히 힘을 쓴다.  
가정주부들, 곧 여성들이 후대의 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

- 5) 사람의 힘만이 사람을 개종시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될 수록 빨리  
안전하고도 명석한 이들에게 성서를 주도록 한다.

- 6) 모든 종교서적은 외국말을 조금도 쓰지 않고 순 한글말로 쓰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  
28)

위의 결의문에서 한글성서에 관련하여 볼 때 가장 중요한 항목은 바로 6번 항목이다: “모든 종교서적은 외국어를 쓰지 말고 순 한국말로 기록하라.” 그러므로 1882년에 나온 『로스 번역』은 이미 위의 정책보다 앞서 한글로 번역하였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현대 『성서번역의 이론과 실천』(*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이라는 책을 통하여 성서번역 이론을 소개하여 그 공로와 이론을 널리 인정받고 있는 유진 나이다(E. Nida)의 주장은 로스의 한글 번역이 갖는 역사적인 의미를 더 분명하게 밝혀준다. 즉 나이다의 번역 이론에 의하면 성서번역의 제일 원리는 “이것이 옳은 번역인가라는 질문은 누구를 위한 번역인가에 대한 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28)</sup> 그리고 이를 충족

28) C. C. Vinton, “Presbyterian Mission Work in Korea”, *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XI-9 (Sep. 1893). 민경배, 『韓國基督教會史』, 198-99; 김인수, 위의 책, 125.

시키기 위해서는 (1) 전통적인 언어를 충분히 반영하였는가, (2) 현재 사용되는 언어로 번역되었는가, (3)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쉽고 자주 쓰이는 말로 번역되었는가? 이 세 가지를 점검하여야 한다고 지적한다.<sup>30)</sup> 마지막으로 처음 선교지에서 성서를 번역할 때는 비기독교인들에게 이해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기독교인들에게도 자연히 알아들을 수 있는 번역이 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로스 번역』은 현대 성서 번역의 원리에 “이미” 충실하고 있다는 점과 선교사들이 고집스럽게 주장해 온 순 한글로 성서 번역을 실천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즉 로스가 생각한 번역의 대상은 한문을 읽을 수 있는 식자층이 아니라 지금은 글을 몰라도 앞으로 한글성서를 읽을 수 있는 일반 대중이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잠재된 독자층을 향한 번역은 위험 부담이 큰 모험이었다. 따라서 로스와 번역자들은 한자어보다는 고유 언어를 살리려고 애썼던 것이다. 이 점이 바로 나이다의 번역 이론에 부합하는 부분이다. 로스 번역은 무엇보다도 19세기 후반 한국 사회에 한글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문화 창달과 사회 변혁에 초석을 놓았다는 점을 간파해서는 안 될 것이다.

#### 4) 로스 이후 번역 현황

로스의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 간행 이후 한글성서의 발행은 만주와 일본에서 붓물을 이루기 시작한다. 1881년 5월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일본에 갔던 홍문관, 이수정(李樹正)은 동경에 머무는 동안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된다.<sup>31)</sup> 이를 알게 된 미국 성서공회 총무 루미스(H.

29) E. Nida & C. R. Tabler,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Leiden: E. J. Brill, 1969), 1.

30) Nida & Taber, 31. cf. E. Nida, *Bible Translating: An Analysis of Principles and Procedure, with Special Reference to Aboriginal Languages*(London: United Bible Societies, 1961), 12.



Loomis)는 한국 선교의 호기라고 판단하고 이수정에게 복음서를 한글로 번역하도록 부탁한다. 이수정은 이를 받아들여 1884년 『현토한한신약성서』를, 1885년 『신약마가전복음서언해』를 번역 출판하였다. 다음은 『이수정역』의 한 구절이다.

“神(신)의 子(자) 예수쓰크리슈도스의福音(복음)이니 그처음이라 豫言(예언자)의 記錄(기록)한바의일너스되보라니나의使者(사자)를네압히보내여씨네道(도)를갓추게하리라”(막 1:1).

『이수정역』은 “세례”, “그리스도”와 같은 독특한 단어는 “밥테슈마”, “크리슈도스” 등으로 헬라어를 한글 음역하였고 동시에 한글 번역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지식인들의 편리를 위하여 중요 낱말을 한자와 한글로 병기하였다. 이 점이 바로 『로스 번역』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즉 『로스 번역』이 무산자를 위한 서민적인 번역이라면 『이수정역』은 엘리트층을 위한 귀족적이며 선비적인 번역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수정이 번역서의 이름을 『신약마가전복음서언해』라고 칭한 것은 한글 창제 이후 유교와 불교의 경서를 한글로 옮긴 것을 언해라고 불렀기 때문이다.<sup>32)</sup> 이수정은 일본에서 성서를 번역하는 한편 조선 선교의 필요성을 선교 잡지에 호소함으로써 미국 장로교와 감리교는 조선에 선교사를 파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sup>33)</sup>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조

31) 이수정에 관하여는 吳允台, 『韓國基督教史 IV: 改新敎傳來史 先驅者 李樹廷 編』(서울: 혜선출판사, 1983); 李光麟, “李樹廷의 人物과 그 活動”, 『史學研究』20 (1968); 李永獻, “李樹廷論”, 『敎會와 神學』3 (1970) 등을 보라. 그리고 이수정의 마가복음언해에 관하여는 金秉喆, “李樹廷 譯刊의 『신약마가전복음서언해』 研究”, 『象隱 趙沔植博士頌壽記念論叢』, 1971; 張秉日, “李樹廷과 마가복음 번역”, 『基督教思想』, 1967년 1-2월 등을 참고하라.

32) 이용호, “한국 근대 문화의 밑바탕이 된 한글 번역 성경”, 『성경』95(1980. 12), 24-39. 김영덕, “諺解文體와 聖書翻譯體와의 關係研究”, 『韓國文化 研究院論叢』14(1969), 55-77을 참조하라.

선에 오기 전에 일본에 틀러 조선의 사정과 한글을 배우고 이수정의 한글성서를 들고 한국 땅을 밟는다.

만주와 일본에서 이루어진 번역을 편의상 국외 번역으로 구분하는데 이후에는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번역과 개역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된다.<sup>34)</sup> 국내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상설집행성서위원회”(The Permanent Executive Bible Committee) 산하 “성경번역자회”(The Board of Official Translators)가 조직되어 성서번역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된다. 이후 개인과 번역자회를 통하여 많은 낱권 성서가 쏟아진다. 즉 1887년 번역자회의 『마가의전호복음서언해』, 1890년 『누가복음전』, 『보라달로마인서』, 1891년 펜윅(M. C. Fenwick)의 『요한복음전』, 1892년 번역자회의 『마태복음』, 게일의 『사도행전』, 1893년 펜윅의 『약한의기록한대로복음』 등의 출간이 이어져 마침내 1900년까지 모든 신약이 낱권으로 출간되었다. 구약의 경우에는 1898년 알렉산더 피터스(A. A. Pieters)가 『시편촬요』를 기점으로 1906년 『창세기』, 『시편』, 1907년 『잠언』, 『삼우엘전후』, 『말라기』, 『출애굽기』, 1908년 『열왕기상하』, 『이사야』, 1910년 『삼우엘전』 등이 나온 후 1911년 『구약전서』가 합본이 된다. 마침내 한국교회는 1882년 로스의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를 역간한 이래 20년 만에 신구약 한글성서를 완역하여 『성경전서』를 발행하게 된다. 그리고 같은 해 신약과 구약을 합본하여 한글성서 최초의 신구약 전권 『성경전서』(舊譯)가 탄생된다. 이후에 한편으로 번역상의 오류를 바로 잡고 다른 한편으로 한글의 표기법에 따라 성서를 개역하는 “개정자회”를 두어 번역과 개정이 지속되었다. 뿐만 아니라 개인역을 포함하여 『신약

33) 이수정은 일본 교회의 선교사 파송을 거절하고 1883년과 1884년 두 차례에 걸쳐 The Missionary Review에 선교사 파견을 요청하는 글을 실어 미국 교회에 호소하였다. 吳允台, 『韓國基督教史 IV』, 85;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135 이하.

34) 이덕주, “한글성서”, 418. 한편 최석우 신부는 그 사용 목적에 따라 전례용, 신자용, 교회 일치용으로 나눈다. 최석우, “우리말 성서가 가지는 교회사적 의미”, 『하느님이 우리말을 하시다』, 『성서와 함께』, 129(1986, 12), 14-20.

전서 鮮漢文』(1906), 『부표관주 신약전서』<sup>35)</sup>(1910), 『신약전서 관주』(1912) 등의 한문과 한글을 섞어쓴 성경이 출간되었다. 1938년에는 신약을 3회, 구약을 2회 개역하여 『성경전서』(改譯)를 펴내고 1952년에 ‘한글맞춤법 통일안’(1933)에 맞춰 간행하게 된다.<sup>36)</sup> 이와 같이 한글성서는 『로스 번역』을 시작으로 번역과 간행이 계속되면서 조선의 민중들을 일깨우는 고요한 혁명을 수행하고 있었다.

### 3. 한국 문화 · 사회의 길라잡이: 한글성서가 미친 영향

#### 1) 한글 경전의 번역과 한글성서

한글성서의 출현 이전 불경과 유교의 경전 유입은 당시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까? 불교와 유교의 경전은 한글 창제 이전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한문 경전을 자연스레 사용하였다. 그러나 세조는 간경도감(1461년)이라는 관청을 신설하여 『석보상절』, 『농암경 언해』, 『반야심경』 등을 번역하였다.<sup>37)</sup> 나중의 일이지만 유교의 『사서삼경』도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한글로 번역되었다. 그렇다면 번역된 불교 서적과 유교경전은 조선 사회와 문화에 변혁적인 역할을 하였을까? 불행히도 우리는 불경과 경서의 한글 번역이 그 이후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 왜 이 두 종교의 한글 경전은 조선 사회를 뒤흔들기엔커녕 내부적으로도 활용되지 못한 채 사장된 것인가? 김정수는 이에 대

35) 부표성경은 1906년 『신약전서』를 대본으로 하여 성서 본문의 내용에 따라 빨간 색으로 글자와 표식을 이용하여 성서의 이해를 돕고 있다. 예를 들어 罪는 “죄”를, 저울은 “심판”, 화살은 “회개”를, 악수는 “사회”를, 십자가는 “구원”을, 비둘기는 “믿음”을, 동불은 “간증”을, 닳은 “보호”를, 血은 “성결”을, 왕관은 “재림”을, 그리고 나뭇잎은 “신유”를 나타내는 부표로 사용되었다.

36) 나채운, 『우리말 성경연구』(서울: 기독교교문사, 1990), 567; 강만길, 『대한성서공회사』211-23.

37) 이용호, “한국 근대 문화의 밑바탕이 된 한글 번역 성경”, 24-39.

하여 “이러한 사실들은 적어도 ‘어리석은 백성을 위한 한글’의 효능이 불교나 유교에서 잘 발휘되지 못했음을 뜻한다. 그 이유는 두 종교가 한글이 창제되기 전에 토착화한 까닭에 한문의 텃세가 너무도 굳었다는 데 있지 않을까 한다”고 풀이 한다.<sup>38)</sup> 그러나 불교와 유교 경전의 한글 번역이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이 두 경전은 아직도 소수 엘리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중의 역사의식을 깨우기에는 그 한계가 분명하다.

그렇다면 민중종교를 자처하던 동학과 증산교(熊山敎)의 사정은 어떠한가? 『동경대전』은 순 한문을, 『대순전경』은 한글과 한문을 혼용하고 있다. 이 민중종교가 배우기 쉽고 기록하기 편한 한글 대신 어렵고 복잡한 한문에서 헤어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특히 『동경대전』은 1882년의 『로스 번역』보다 불과 2년 전의 일이었다고 『대순전경』은 한글 성서의 유포와 파급 효과를 목격하였을 1926년의 일이다. 그러나 이들 민중종교와 달리 신생 기독교는 제문서와 성서를 한글로 옮겼다. 그리하여 한글성서는 결국 근대 한국 문화·사회 전반에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유입과 한글성서가 특히 19세기 후반 조선 사회와 문화를 변혁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는 다음의 네 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조선조 말기의 사회경제적인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조정은 사색당파로 분열되어 중앙 정부의 장악 능력은 눈에 띄게 줄었다. 더구나 몇 차례의 가뭄과 질병이 휩쓸고 지나가 경제적으로 피폐한 상태였다. 설상가상으로 관리들의 수탈은 민초들의 삶을 더욱 고단하게 하였으며 조선의 지질학적인 운명은 대외적으로 강대국들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있었다. 이 같은 조국의 현실 앞에서 민중들은 노쇠한 유교 이념을 깨뜨리고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강구하게 되었다.<sup>39)</sup>

38) 김정수, 『한글의 역사와 미래』(서울: 열화당, 1990), 41-42.

둘째, 대량의 인쇄가 가능한 인쇄술의 공헌을 간과할 수 없다. 손으로 글자를 하나씩 필사하던 그 시기에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펴낼 수 있는 인쇄술의 발달로 인하여 순식간에 새로운 사상과 지식이 소개되어 조선의 식자들은 지적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었다. 기독교와 함께 서구의 발전된 인쇄술이 유입되어 이로 인한 한글성서의 출판과 보급은 상승되었다. 동시에 당시 교육에서 소외된 절대다수의 민중들이 교육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신명(身命)을 내어놓은 선교사들의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이다. 로스와 매킨타이어를 위시하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게일과 레이놀즈 등 많은 선교사들이 조선 선교의 사명을 감내하면서 한글성서의 번역과 출판을 위하여 열성을 다하였다. 특히 아펜젤러는 1902년 성서위원회 목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가던 중 조난을 당하여 숨을 거두기도 하였다. 이러한 선교사들의 열정과 한글 번역이 맞물려 그 효과는 배가되었던 것이다. 물론 권서인(勸書人)들의 역할도 한글성서의 전파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sup>39)</sup>

넷째, 가장 중요한 점은 불교와 유교의 경전이 한글로 번역되었을 때 절대다수인 민중들이 사회 주체로서 성숙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한글성서의 출현 시점인 19세기 말 조선 사회는 겉으로는 임오군란(1882년), 동학혁명(1894년) 등으로 시련과 좌절을 겪는 동안 내부적으로는 민중의 사회 주체적인 의식과 역량을 쌓아가기 시작하였다. 민중들은 역사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서 역사의식을 갖게 되었고 한글성서의 반포와 더불어 그 효과는 극대화되었던 것이다. 조선의 위기가 정점에 이르렀을 무렵에 한글성서의 출현은 새로운 사회로 안내하

39) 18세기 후반 역사적인 상황에 관하여는 조 광, “조선 후기 민중의 고난과 희망”, 『성서와함께』 130(1987/1), 20-24를 참조하라.

40) 이만열, “조기 배서인의 역할과 문서선교 100년”, 『기독교사상』 378(1990. 6), 56-74; idem, 『대한성서공회사 II』보라.

는 길잡이가 되었던 것이다.<sup>41)</sup>

이런 상황에서 한글성서의 위력은 실로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캐나다 출신으로 한글에 관한 많은 저서를 남긴 게일(J. S. Gale)은 한글과 기독교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말로 설명한 바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수백 년 동안 수면 상태에 빠져 있던 한글이 자명종 소리에 놀라 깨어나듯 이제 비로소 긴 잠에서 깨어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적을 사방에 알리기 시작하였다.” 한글성서의 보급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은 다름 아닌 “한글”이었다.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한글 연구는 단지 선교를 위한 보조 수단에 불과하였다. 이들은 한글 사전이나 문법이 체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글의 문법과 구문을 분석하고 연구하였다.<sup>42)</sup>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은 미션계통의 학교에서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신학문과 함께 한글의 우수성도 알리기 시작한다. 이들 중에 개화기 초기의 대표적인 한글 학자들이 출현하여 한글 연구는 더욱 박차를 더하게 된다. 선교사들로부터 한글 교육과 신학문을 배운 젊은 학자들은 과감한 한글 전용(1896년 독립신문)과 띄어쓰기 등 한글의 개량 문제와 한글의 표준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하였다.<sup>43)</sup>

한편 한글성서의 번역 간행은 그 자체가 당시 한국의 권력층과 지식층에 대한 도전 행위였다. 즉 소수의 지배 계층이 독점하던 글놀이(文化)를 이제 “어리석은 백성”이 누릴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글은 백성을 위한 글이었지만 수백 년 동안 한글과 동떨어져 있다가 이제서야 되돌려 받은 것이다. 이것은 일찍이 1443년 훈민정음의 창제 이래 한글의 본래적인 목적을 회복하게 되었다. 한글성서

41) J. H. Grayson, “Christianity and Modernization: The Historical Place and Future Role of Christianity in Korea” 제9회 『한국학 국제학술회의논문집』(1996. 6), 363.

42) 고영근, 『한국어문운동과 근대화』(서울: 탑출판사, 1998), 258.

43) Ibid., 7. 특히 고영근에 의하면 “기로 풀어쓰기는 1909년 『국문연구 의정안』에서 주시경이 처음 주장하고 『말의 소리』(1914)에서 완성된 체계가 드러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보다 먼저 선교사들에 의하여 착상되었다는 견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가 나타남으로써 한국의 민중들은 비로소 자기를 찾게 되었고 사대주의를 버리고 자립사상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최 준은 한글성서 50주년을 기념하는 문집에서 한글성서의 위업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한글로서의 한국말 성경이 나타남으로 해서 한국의 국민 대중들은 비로소 자기를 다시 찾게 되었고 사대주의를 버리고 자립사상을 갖게 되었다. 이것은 확실히 한국의 르네상스였다. 이로써 이제까지 일자무식의 까막눈이라 천대 받던 일반 국민 대중들도 네 활개를 치고 다닐 수가 있게 되었고 또한 버젓이 내 글을 알고 읽을 줄 아는 활기 띤 사람들이 되었다. 그들의 두 눈은 비로소 희망으로 반짝이게 되었고 진리 탐구의 발판을 갖추게 되었다.<sup>44)</sup>

한문은 일부 계급의 독점물이 되어 서민과 부녀자들은 가까이 할 수 없는 글이었으나 한글은 한글성서와 더불어 계층에 상관없이 보급, 전파되어 갔다. 그러므로 한글성서가 한국 선교에 절대적인 공헌을 끼쳤음은 물론 한국 근대 문화의 개척과 사회의 발전에도 선구자가 되었다. 즉 정부의 공식 문자가 아닌 한글로 기독교의 경전을 번역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서 한글성서는 선교 수단으로서 그 일차적인 기능을 넘어 한글을 읽고 문화를 향유하며 역사의 변혁에 참여할 다중을 배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 2) 한글성서의 보급 및 한글 문서의 증가

한글성서의 보급이 활발해지자 이에 따른 보조적인 전도 자료와 서적들이 대거 간행되면서 자연히 한글의 사용도 점차 증가하게 된다. 다음은 한글성서 외에 기독교에 관련된 한글 문서들로서 한글의 보급과 한글 사용의 증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다.

44) 최 준, “성서가 한국신문에 미친 영향”, 『성서와 한국 근대 문화』(서울: 대한성서공회, 1960), 47.

『척사윤음』(1839)	『턴주성교공과』(1862)
『령세대의』(1864)	『예수성교요령』(1881)
『예수성교문답』(1895, 1917, 1937)	『소민필지』(1889)
『장원량우상론』(1893)	『턴로력명』(1895)
『복음요수』(1895)	『파혹진선론』(1897)
『병인소주』(1900)	『원입교인규조』(1904)
『아모권면』(1906)	『월남망국사』(1908)
『마귀를 물니치는 큰 방책이라』(1909)	『밋논거시 보논거시라』(1911)

\* 기타 한글의 발전에 밑거름이 된 문법과 사전류

『한불조연』(1880)	『조선어 첫걸음』(1877)
『한어문전』(1881)	『한영조연』(1890)
『소과지남』(1894)	『조선어 동사』(1898)
『신옥편』(1908)	『언문』(1909)
『한영사전』(1911/1914)	『말의 소리』(1914)
『선영문법』(1915)	『삼천사전』(1924)
『한글』(1927) <sup>45)</sup>	『성경사전』(1927)
『문예독본』(1931)	『라선사전』(1936)
『성경고유명사사전』(1937)	

선교 사업 이외에 교육 사업을 통하여 서양의 수학, 지리, 역사, 생물, 물리, 화학, 어학 등의 새로운 학문과 현대 문화와 접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런 점에서 한글성서는 한국 문화의 길라잡이가 되

45) 『한글』은 사전류가 아니라 월간지이지만 한글 사전과 문법책의 출현 못지않게 한글의 발전에 기여하였으므로 여기에 수록한다. 1921년 12월 김윤경, 최현배, 이윤재, 신명균 등 기독교인 한글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조선어연구회를 결성하고 후에 이 잡지를 정기적으로 간행하여 한글의 근대화에 이바지하게 된다.



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김재준은 성서의 간행과 함께 많은 한글 잡지와 단행본들이 속출하여 바야흐로 한글 문화가 형성된 의미를 다음과 같이 평한다: “민중이 우리 인구의 절대 다수나만큼 성서의 간행 부수도 우리 거래 간행물의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었다. 따라서 성서가 요새 말하는 민중 문화와 민중의 사회 참여를 유도했다고도 할 수 있겠다.”<sup>46)</sup>

### 3) 한글의 발전과 한글성서

한글성서로 인하여 한글의 발전 즉 띄어쓰기와 맞춤법 그리고 한글 문법의 정리와 각종 사전이 편찬되기 시작하였다. 한글의 발전에 대한 한글성서의 공로는 여러 차례 논의된 사실이다. 다음 인용구는 누가복음 10장 27절을 번역 연대별로 나열한 것이다. 이것은 한글의 띄어쓰기와 맞춤법 통일안이 없는 가운데 성서가 한글로 번역되는 동안 원칙을 찾아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한글성서의 번역사(史)가 곧 한글의 발전사가 된다.<sup>47)</sup>

디답하여갈오되마음을다하며목숨을다하며힘을다하며뜻을다하여쥬 너의하  
느님을 사랑하고또한근체사람사랑하기를제몸갓티하라하였너이다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 1882』

디답하여갈오되마음을다하며목숨을다하며힘을다하며뜻을다하여쥬너의하

46) 김재준, “한글성서와 그리스도 교회”, 『한글성서와 거래문화』(서울: 기독교교문사, 1985), viii.

47) 1996년 경북 안동에서 발견된 이용태(李應台 1556-1586) 부인의 편지는 16세기 한글을 보여주는 동시에 초기 한글성경 문체를 비교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 때문에 한글구를 소개 한다:

자내상해날도려닐오되들히머리세도복사다가홍의죽자하시더니엇디하야나물두고자내  
문저가지는날고조식하며뉘괴걸하엿디하야살라……다문서대강만덕되이유무조세보  
시고내무배자세와비고조세니르소나는우물자내보려민고인되이다물래비석하그지그지  
업서이만덕되이다<sup>1)</sup>병술뉴월초호분날지보셔』

님을 사랑하고 또 근체 사람 사랑하기를 제 몸 갖치 하라 하였나이다

『예수성교전서 1887』

대답하야 굴으되 네 마음을 다 하며 성품을 다 하며 힘을 다 하며 뜻을 다 하여 주 네 하느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갓치 사랑 하라 하였나이다  
다 하거늘

『누가복음 1898』

대답하야 굴으되 네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네 하느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갓치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거늘

『신약전서 1906』

대답하야 갈아대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목숨과 갓치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신약개역 1939』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개역한글 1956』

즉 최초의 번역인 『로스 번역』에서는 띄어쓰기가 안 되었고 낱말의 표기도 자유롭지만 번역이 거듭되면서 1898년 『누가복음』에서 처음 띄어쓰기를 하고 같은 단어라도 표기하는 방법이 점차 현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모음 “으”와 “하느님/ 하나님/ 하느님”에 관한 다른 표기법이다.<sup>48)</sup> 성서의 번역과 함께 한글의 연구, 문법

48) 하느님인가? 하나님인가? 이 문제는 아직도 논쟁거리이다. 즉 한글학자들은 “하나”라는 숫자에 존칭어 “님”을 붙일 수 없다고 본다. 설령 “하늘”의 옛 표현 “하늘”에서 “하나님”이 왔다고 해도 바른 표현은 “하느님”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교계에서는 하나님을 “한 크신 어른”으로서 히브리어 “여호와” 곧 유일한 분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최현배, “기독교와 한글”, 『신학논단』7 (1962. 10), 73-75; 박찬욱, “한국어명고(韓國語神名攷) - 정서법(正書法)에서 본 ‘하느님’”, 『한글 성서와 겨레문화』, 93-114; 전택부, “하느님 및 천주라는 말에 관한 역사 소고”, 『한글 성서와 겨레문화』, 591-638; 閔休, “조선어 성경의 유래”, 53.

의 정립이 이루어지는 한글성서의 표기법은 점차 현대 한국어로 발전하는 양상을 띤다. 1933년 조선어학회에서 『한글맞춤법』을 제정하게 되는 데 한글성서가 바로 그 막후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sup>49)</sup>

그러나 우리는 한글의 발전이라는 길으로 드러난 사실만을 평가할 뿐 실질적으로 이를 가능케 하였던 역사적인 사실을 놓쳐왔다. 그것은 한글성서의 번역과 반포 과정에서 한글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고 한글의 발전을 가능케 한 조선의 여러 인재들을 발굴하고 배출하였다는 점이다. 이들은 주시경, 이운재, 김윤경, 정태진, 정인승, 장지영, 최현배, 강병주 등이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기독교 학교에서 한글 교육을 받고 자라면서 한글의 쉽고도 과학적인 점에 매력을 느끼고 '한글은 우리의 것'이라는 자부심과 주체의식을 갖게 된다.<sup>50)</sup> 한편으로 서양인 선교사들이 한글을 연구하고 문법과 사전을 간행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인으로서 큰 자극을 받는다. 선교사들이 성서 번역을 통하여 잠자는 한글을 일깨웠다면 조선의 한글학자들은 한글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한글의 실용성과 현대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초창기 한글 연구와 한글 발전에 기여한 많은 학자들이 한글로 쓰인 성서를 읽고 배우면서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에 놀랐고 한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한글성서의 반포와 한글의 발전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다.

#### 4) 한글성서의 출현과 그 문화 · 사회사적인 의미

특정 종교의 경전이 한 나라의 언어와 문법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

49) 조선어학회가 “한글맞춤법 통일안”을 발표한 후 조선어학회와 성서공회 사이에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39년 조선 기독교장로회 최회에서는 맞춤법 통일안의 채용을 결의하였지만 결국은 무산되었다. 1952년 6·25전쟁 중에 “개역성서”가 한글맞춤법에 따라 출판된다. 최현배, “기독교와 한글”, 62.

50) 孤舟, “耶穌敎의 朝鮮에 준 恩惠”, 『청춘』 9(1917), 13-18.

을까? 중세 성서의 번역은 이와 관련한 좋은 예를 보여준다. 즉 종교 개혁자 루터(Martin Luther)는 1522년에 독일어 성경(구약 1534)을 번역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독일어의 통일과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고<sup>51)</sup> 1604년 영국의 제임스(James) 왕은 최고의 석학 54명을 뽑아 원전에 근거한 번역을 완성하였다. 1611년 영국에서 출간된 『흙정역』(King James Version)은 영어권에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권위 있는 번역(the Authorized Version)으로 공인받아 왔다. 이 성경의 이름답고도 유려한 문장은 영어와 영문학의 발달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종교개혁 당시 독일과 영국에 기독교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특정 종교의 경전과 언어가 사회, 문화 전반에 미친 영향을 어느 정도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글성서의 공헌은 이에 비하면 그 가치와 의미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도 값진 것이다. 즉 한글성서가 번역, 반포되던 시기의 조선은 외세와 타종교에 대하여 배타적인데다가 유교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조선의 사회, 문화, 윤리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게다가 불교의 세력이 아직도 민중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외래 종교인 기독교가 들어갈 공간은 상대적으로 작았던 것이다. 더구나 한자로 된 불교와 유교의 경전이 통용되고 해설도 한문으로 읽히고 있었다. 그런데도 기독교는 조선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한글성서를 번역하여 짧은 시간에 조선의 문화와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꿀 만큼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은 영어 및 독일어 성서가 미친 영향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19세기 말 조선은 소수 양반들을 중심으로 한 한문 문화요 한문 사회였다. 그러나 한글성서의 보급으로 인하여 한글을 읽을 수 있는 다중이 생겨나고 따라서 사회와 문화의 중심이 일반 대중으로 확산되는 시기였다. 기독교의 역할이 아직 미약한 상황에서 번역된 한글성서가 문

51) 나채운, “세계의 성경 번역사”, 『기독교사상』(1993.2), 10-40.

화와 사회사의 변동에 끼친 영향은 실로 막대한 것이었다. 즉 과학적이면서 배우기 쉬운 한글이 한글성서와 함께 보급되면서 서구의 문학과 지식이 소개되고 서구의 문화와 사회를 접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한글 문학과 민중의 역사 참여를 가능케 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김득황이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대중문화 발달에 있어서 “성서 번역은 유사 이래 가장 크고 값진 선물”이었던 것이다. 한일 합방 당시 한문이나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은 10%에 불과하였고 반대로 문맹자들은 90%에 다다랐을 것으로 추측한다.<sup>52)</sup> 그러던 것이 한글성경과 찬송가, 그리고 기독교의 문식 보급으로 말미암아 문맹률은 크게 낮아졌다. 특히 일제 강점기 말엽에는 한국의 정신과 얼을 말살하는 정책으로 인하여 한글을 가르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나 그 와중에도 한글이 유지되고 보급된 데는 기독교의 선교 사업과 한글성서 보급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1934년 1월 조선일보에 실린 “조선의 예수교”라는 사설에는 기독교 50주년에 대한 평가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예수교 신교가 조선에 들어온 지 금년이 50년이라 한다. 이 반세기 동안에 예수교가 조선에 미친 영향은 아마 그동안의 다른 어떤 영향보다도 클 것이다. 예수의 교리 자체는 차치하고 신교육, 신의료, 과학, 음악, 서양식 생활 방식을 조선에 처음으로 또 다량으로 이식한 것이 그다. 일언이폐지 하면 조선은 예수교회를 통하여 구라파 식의 문화와 접촉한 것이었다. 더구나 예수교의 성경 기타 종교 서류를 순 조선문으로 번역하여 보급한 것이 조선어와 글의 갱생 발달에 준 영향은 오직 한글의 제정에 버금갈 공적이다.

52) 김득황, “한국의 현대문화”, 72.

특히 외솔 최현배는 “기독교와 한글”이라는 글에서 기독교가 한글에 준 공덕에 대하여 다음의 여섯 가지를 들고 있다.<sup>53)</sup> (1) 한글을 민중의 사이에 전파하여 실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날로 쓰기에 편하게 한” 세 종의 뜻이 실현되었다. (2) 한글의 맞춤법과 문체의 발전과 더불어 “언문일치”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sup>54)</sup> (3) 한글에 대한 존중심을 일으키고 한글을 지키는 마음을 길러 사서삼경의 한자와 같은 지위를 얻게 되었다. (4) 선교사들은 성서를 번역하는 동안 한글의 과학적인 가치와 우수성을 깨달았다. (5) 배달의 말글을 세계에 전파하였다. 이와 함께 한글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었다. (6) 기독교의 성경과 문서는 “한글만 쓰기”의 기운을 조성하였다. 한편 국어학자 김정수는 한글성서의 보급과 그 역사적인 의미에 대하여 김양선을 인용하여 평가하고 있다.

Ross Version의 한글의 재생과 그 부흥에 미친 영향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한문의 본고장에서 한문성서를 가지고 번역하는 저들로서는 국한문 성서를 만들 법 한데도 순순한 한글성경을 만들어 내었다…… Ross Version을 읽는 사람들은 그것이 한문이 아니고 한글인데서 더욱 친근감과 통쾌감을 느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한글을 배웠다. Ross Version은 한글로써 넉넉히 어렵고 고상한 사상을 표시할 수 있다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후래의 선교사들도 그의 뒤를 따라 성경, 찬송가, 교리서, 교과서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글로 만들었다. 이때로부터 한글은 완전히 재생되었고 또한 부흥되기 시작하였다.<sup>55)</sup>

그러나 최현배와 김양선의 지적과 평가에 일면 수긍하지만 한글성서

53) 최현배, “기독교와 한글”, 51-80.

54) 김윤경, “성서가 국어에 미친 영향”, 『성서와 한국 근대 문화』, 한국어 성서 완역 50주년기념문집(서울: 대한성서공회, 1960), 5-42.

55) 김양선, “Ross Version과 한국 Protestantism”, 448-49; 김정수, 42.

가 한국의 역사와 사회에 기여한 역동적인 점을 간과한 것도 사실이다. 외국 선교사들이 주축이 되고 외국 성서공회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한글성서 번역이지만 우리가 이를 중시하는 것은 근대 한국 사회의 비옥한 밑거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족문화의 발전이라는 토대를 형성하였다는 사실 때문이다.<sup>56)</sup> 뿐만 아니라 한글성서의 보급은 새로운 문서 운동의 중심이 되었고 한국 문화의 중심축을 한문 사용권에서 한글 사용권으로, 즉 소수 특권층에서 일반 대중으로 이동시켰다. 따라서 한글성서의 탄생과 그 보급은 한국 사회에 무산대중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였고 더 나아가 한국 문화와 역사의 길라잡이가 되었다고 하겠다.

#### 4. 동방의 밝은 빛

##### 1) 요약: 한글성서와 한국 문화

“조용한 아침의 나라”를 일깨우고 근대의 빛을 비추게 한 그 중심에는 한글이 있었다. 창제 이후 “바른 소리”로서 한번도 제 소임을 다하지 못하던 한글은 기독교와 함께 조선을 깨우기 시작하였다. 19세기 후반 본격적으로 한글로 옮겨진 성서는 로스를 비롯한 초기 한국 선교사들이 이룩한 업적이다. 즉 지난 400여 년 동안 진서의 위치를 한자에게 내어주고 한글은 규방문자 취급을 받았으나 성경이 한글로 옮겨지자 한글이 살아나고 또한 기독교가 사는 계기가 되었다. 한글은 이제 당당히 한글성서로 거듭 태어나 한반도에 고요한 혁명을 일으키고 근대 한국 사회와 역사의 선도자가 되었던 것이다.

한국 선교를 위하여 번역된 한글성서는 개화기 국문 연구의 초석과 부흥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한자 문화에 눌러 언문으로

56) 김병철, 『韓國近代翻譯文學史研究』(서울: 을유문화사, 1975) 67; 이원순, “성서국역사 논고”, 『민족문화』 3(1978), 41.

경시받던 한글이 성서번역으로 인하여 한글 전용과 한글의 새로운 탄생으로 이어졌던 것이다.<sup>57)</sup> 어려운 한자로 뜻을 표현할 수 없는 백성들에게 쉽고 바른 소리를 가르치고자 하였던 훈민정음의 정신과 억눌리고 소외받은 민중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려는 예수의 정신이 성서의 한글 번역 과정에서 만났다고 말할 수 있다. 기독교와 한글의 정신은 한글성서를 통하여 한반도에서 실현된 것이다.

한국에서 1500년의 역사를 가진 불교나 유교, 그리고 민중종교를 표방하고 태어난 이 땅의 천도교나 증산교가 한문으로 쓰인 경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상태인데 한글성서는 기독교가 전래된 지 한 세대가 되기도 전에 완역 보급되었다. 한글성서의 출현은 우리말과 우리글로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 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더구나 쉬운 한글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한자 중심의 소수 식자층이 향유하던 문화의 창달과 발전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던 다수의 민중이 참여하고 공헌할 수 있는 계기와 공간을 마련하게 된다. 한국 역사에서 한글성서처럼 단기간에 사회 문화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사건은 없을 것이다. 즉 근대 한국의 역사에서 민중의 주체의식이 성장하는 그 중심에는 한글성서가 자리하고 있었다.

## 2) 전망: 동방의 빛

한글성서가 앞으로 한국 사회와 문화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국가적인 사업으로 불교의 경전이 한글로 번역 편찬되었으나 일반 신자들과 대중들의 호응은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러나 이에 비해 서양인의 주도로 이루어진 한글성서의 위력과 파급 효과는 조선을 뒤흔들 만큼 강력한 것이었다. 여기에는 19세기 말 조선 사회의 시대적인 요인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쨌거나 한글성서가 태어나는 과정에서 보

57) 정길남, 『우리말연구』, 109-114.



여준 긍정적인 요인들은 앞으로도 한글성서를 통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첫째로 성서는 교회연합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역사적으로 로스의 최초 한글성서 배후에는 개신교와 가톨릭 간의 연대가 있었다. 1971년 신약, 1977년 『공동번역 성서』의 개신교와 가톨릭의 합작은 세계 기독교사적으로도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은 이보다도 먼저 신구교 사이의 협력이 있었다. 즉 『로스 번역』이 나오기 2년 전 1880년에 리델(F. C. Ridel) 주교와 코스트(G. Coste) 신부가 『한불조전』을 지었고 1881년에는 한국어 문법 『한어문전』을 발간하였다. 그런데 로스와 일본의 성서공회 총무였던 루미스(H. Loomis)의 편지에 의하면 이 두 책은 『로스 번역』과 『이수정역』에 굉장한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sup>58)</sup> 한편 가톨릭에서 단편적으로 번역한 성서가 실제적으로 초창기 개신교 측의 성서 번역에 참고가 되기도 하였다. 사실 1세기 먼저 유입된 천주교는 기독교의 토착화된 어휘와 용어들을 통하여 개신교의 성서 번역에 도움을 주었던 것이다.

둘째, 심화되는 남북 언어의 이질화에 길잡이가 될 수 있다. 『로스 번역』과 『이수정역』은 1900년 번역자회의 『신약전서』가 나오기 전까지 복음 전파에 전위대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레이놀즈(W. D. Reynolds)는 “로스 목사하고 이수정씨가 번역한 역본은 한문과 일본어 성서에서 번역한 것으로 적당한 수정을 가하지 못한 채 거의 한국 학자들의 손에 의하여 번역된 것이어서 복잡한 한문의 뜻과 지방 사투리, 많은 오역과 불분명한 표현 등으로 불완전한 점이 많았다”고 그 어려움을 토로하였다.<sup>59)</sup> 이것은 현재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자못 크다. 현재 북한에서 사용되는 성경은 공동번역을 근간으로 약간 다듬은 것인데 원수가 “원쑤”가 되고 수령은 “두목”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 같은

58) 이덕주, “초기 한글성서”, 501f.

59) *The Korea Mission Field* vol. 12. no. 5(May 1916), 127.

현상은 남북으로 갈린 한반도가 같은 언어를 가졌다는 동질감마저 잃어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통일을 대비하여 기독교가 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한 일 중의 하나는 언어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일일 것이다. 한글성서의 전파와 보급이 한글의 맞춤법 통일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역사적인 경험을 살려서 남북이 공동으로 성서를 발행한다면 남북 언어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성공회 신부 트롤로프(M. N. Trollope)가 1894년 『조만민광』(照萬民光)이라는 발췌 성경을 한문과 한글로 발행한 바 있다. 이 “조만민광”의 의미를 새기면 이 세상 “만민을 빚최는 빚치라”는 뜻이다. 한국에 기독교 전파를 위하여 태어난 한글성서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어 한반도의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빛과 더불어 새로운 문화와 사상을 비추어 주고 있다.

## 참고문헌

- 김득황, “한국의 현대문화와 기독교”, 『기독교사상』 33(1960. 6), 68-73, 94.  
 김양선, “Ross Version과 韓國 Protestantism”, 『白山學報』 제3호(1967), 401-61.  
 김윤경, “성서가 한국 근대문학에 끼친 영향: 한글 보급에 선구 역할”, 『성서한국』 6(1960. 5), 한국어성서완역 50주년 기념 회년 특집호 12-16.  
 김인수, 『한국기독교회사』, 신학연구도서시리즈,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김정수, 『한글의 역사와 미래』, 열화당, 1990.  
 김정현(James H. Grayson), 『羅約翰(John Ross): 한국의 첫 선교사』, 계명대학출판사, 1982.  
 김종은, “구약성서 국역사”, 『신학사상』 22(1979년 가을), 24-66.  
 나채운, “우리 말글과 기독교”, 『한글 새소식』 362호 (2002. 10), 9-10.  
 리진호, 『한국 성서 백년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閔庚培, 『韓國基督教會史』, 신개정판,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0.  
 민영진, “『조선크리스도인회보』에 연재된 구약”, 『기독교사상』 336(1986. 12),

- 108-18.
- \_\_\_\_\_. 『국역성서연구』, 성광문화사, 1984.
- \_\_\_\_\_. “성경이나 성서냐”, 『살림』 69 (1994. 8), 46-56.
- 閔 休, “朝鮮語聖經의 由來”(H. Miller), 『單券聖經註釋』, 柳滢基 編, 신생사, 1934, 53-58.
- 박창환, “한글성서 번역의 역사”, 『교회와 신학』 4(1971), 148-67.
- 백낙준, 『한국개신교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3.
- 성서와 함께. 『하느님이 우리말을 하시다』, 성서와 함께 14주년 기념호, 1986/12.
- 兪允台, 『韓國基督教史: 韓國가톨릭사 II編』, 혜선출판사, 1979.
- \_\_\_\_\_. 『韓國基督教史: 改新教傳來史 - 先驅者 李樹廷編』, 혜선출판사, 1983.
- 유창균, “國譯聖書가 國語의 發達에 끼친 影響”, 『東西文化』, 동서문화연구소, 1967, 59-75.
- 이광수, “耶蘇敎의 朝鮮에 준 恩惠”, 『청춘』 9(1917), 13-18.
- 이덕주, “초기 한글성서 번역에 관한 연구”, 『한글성서와 겨레문화』, 기독교교문사, 1985.
- \_\_\_\_\_. “한글성서 번역에 관한 연구: 1882-1938년 간행된 성서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민족운동』, 서울: 종로서적, 1986, 107-78.
- 이만열, “초기 매서인의 역할과 문서선교 100년”, 『기독교사상』 378(1990. 6), 56-74.
- \_\_\_\_\_. 『대한성서공회사 I. II』,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
- 이용호, “최초의 한글성경.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 『국어교육』 44/45(1983), 421-55.
- 이진호, “한국 선교와 성경 번역”, 『기독교사상』 410(1993. 2), 34-40.
- 전택부, “하느님 믿 터전이라는 말에 관한 역사 소고: 18세기와 19세기를 중심으로”, 『한글성서와 겨레문화』, 기독교문사, 1985, 591-638.
- 정길남, “개화기 국역성서가 한글에 미친 영향”, 『전주대학신문』 제165호, 1983. 6. 30.
- 조 광, “조선 후기 민중의 고난과 희망”, 『성서와 함께』 130(1987/1), 20-24.
- 최성일, 『존 로스의 중국선교방법론』, 오산: 한신대출판부, 2002.
- 최 준, “성서가 한국신문에 미친 영향”, 『성서와 한국 근대문화』, 한국어 성서

- 완역 50주년 기념문집, 대한성서공회, 1960, 43-77.
- 최현배, “기독교와 한글”, 『신학논단』 7(1962. 10) 51-80.
- Grayson, James H. “Christianity and Modernization: The Historical Place and Future Role of Christianity in Korea”, 제9회 『한국학 국제학술회의논문집』(1996. 6), 357-80.
- Griffis, W. E. *Korea, the Hermit Nation*. 신복룡 역, 『은자의 나라 한국』, 탐구당, 1976.
- Lierop, Peter van. “Korea and the Bible”, 『신학논단』 15 (1982), 365-77.
- Nida, Eugene A. & C. R. Taber,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E. J. Brill: Leiden, 1969.
- Reynolds, W. D. “Bible Translation in Korea”, *The Korean Repository* 3/12(1896), 469-74.
- Savage-Landor, Arnold H. *Corea: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신복룡 역,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집문당, 1999.
- Vinton, C. C. “Presbyterian Mission Work in Korea”, *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XI-9 (Sep. 1893).